

기독교 녹색 전통을 통해 본 환경윤리 연구

- 예수, 프란치스코, 슈바이처를 중심으로 -

석 창 훈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II. 기독교 녹색전통

1. 생태주의자 예수
2. 생태찬미자 프란치스코(1181?-1226)
3. 생명경외자 슈바이처

III. 결론

• ABSTRACT •

Love is the center of the gospel and christianity. All creatures, human and other kind, are grounded in God's love. Modern christian are responsible for the integrity of Creation because the global ecosystem falling into a cris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pare the ecological thought of Jesus Christ, Assisi of Francis, and A. Schweitzer. First of all, Jesus Christ is the mediator of creation and the ecologist. He actually lived ecological life in Nazareth and preached good news with ecological metaphors. Francis of Assisi(1181?-1226) is frequently treated in the ecological sensitivities as a nearly isolated examples of ecological responsibility in sea of christian exploitation of nature. He is an embodiment of christianity's ecological promise. Francis's affinities were cosmo-centric and bio-centric. Albert Schweitzer (1875~1965) broadened the meaning of love to cover moral responsibility to every organism, The ethics of Reverence for Life is the ethics of love widened into universality.

The ecological life and message of Jesus Christ, Assisi of Francis, and A. Schweitzer are lead to the christian ecological ethics of authentic wellbeing.

Key Words: christian ecological ethics, ecologist as Jesus Christ, Assisi of Francis, A. Schweitzer, Reverence for Life, wellbeing

I. 서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시대의 징표(signum temporoius)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를 한 편의 영화로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2004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 즈음하여 막이 오른 『투모로우』¹⁾라고 생각된다. 이 영화는 기상 재앙의 도래를 막고, 중병에 걸린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어떤 사람은 영화는 영화일 뿐 내일엔 내일의 해가 뜬다는 낙관주의적 주장(Pollyannas)으로 현재의 환경위기에 무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²⁾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생태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면 “창조질서 파괴는 엘리베이터 속도인 반면 창조질서 보전은 에스컬레이터 속도”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이며³⁾, 위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되며, ‘위기’(危機)라는 한자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잘 포착해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는 마음으로 ‘책임의 여신상’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빅터 프랭클(V. Frankle)의 제안을 떠올리는 것이다. 풍요 속의 낭비보다 절제 속의 검소를 통해 내일 닥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모래는 희망 가득한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이것이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기독교인의 책무성이며, 환경윤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응답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 환경윤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에서 변두리의 과제로 취급되어 온⁵⁾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사랑(agape)을 근거로 환경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녹색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적 삶을 분석하며, 창조질서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진 중세의 프란치스코와 생명경의를 통해 삼라만상의 존중을 일깨운 현대의 슈바이처를 택하여 그 인물들의 사상적 흐름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 환경윤리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녹색전통

적지 않은 환경론자들이 기독교를 반생태학적 종교로 규정하면서 그 이유로 기독교의 유일

- 1)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영화로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모레라는 뜻)』이다. 영화 포스트에 “깨어 있으라, 그 날이 다가온다.”는 말과 얼어붙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이 영화는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마침내 지구에 빙하기가 닥친다는 환경 재앙을 모티브로 하였다. 영화 초반부에는 주먹보다 큰 우박이 동경에 쏟아져 많은 사람이 다치고, 미국 LA에 빌딩을 반쪽 내어 버리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휘몰아치고, 뉴욕에는 거대한 해일이 도시 전체를 덮쳐 마침내 자유의 여신상마저 잠기게 하는 대형 스케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20세기 폭스사 제작비용 1억 2,500만 불, 상영시간 123분)
- 2) G.S. Howard, "Ecocounseling Psychology: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1 No.4, 1993, p. 553.
- 3)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경의를 비롯한 전국의 107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환경비상사국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한국의 환경상황은 비상상황이라 선언하였다.〔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1일자 참조〕
- 4) 줄고, 『환경신학의 이해』(대구: 대건인쇄출판사, 2004), pp. 8-9.
- 5) 박원기, 『기독교 사회윤리, 이론과 실제』(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p. 275.

신관이 범신론(汎神論)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피조세계와 무관하게 되었다는 점⁶⁾, 구약성경의 창조이야기에 나타난 자연관은 인간중심적이어서 인간의 자연 지배와 자연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⁷⁾ 그리고 영혼과 물질의 이원론은 인간을 초자연적이고 영적 존재로 파악하는 반면에 물질세계를 악마화하고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⁸⁾, 신학사에 등장하는 서구 신학의 조류가 자연을 단지 인간적 목적을 위한 재료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⁹⁾

이러한 비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배척하거나 애써 고개를 돌리는 무관심보다 우선 대부분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끄덕임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기독교 전통에서 생태계가 차지하는 자리란 고작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적 드라마에서 무대의 배경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미학적, 과학적, 여가활동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넘어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¹⁰⁾

이러한 기독교인의 각성을 못자리로 하여, 기독교가 생태계를 보전하고 인류생존에 공헌할 가치와 미덕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신학적으로 밝히고 그 주춧돌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때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프란치스코, 슈바이처의 생태적 삶과 사상을 살펴본다.

1. 생태주의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오셨다. 인류뿐 아니라 전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는 오셨다.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생태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이다.¹¹⁾ 예수 그리스도가 생태주의자라는 표현에 혹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나아가 저항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예수께서 생태적 감수성으로 포착한 성서 속의 이미지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¹²⁾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가라지, 가뭄, 가시, 강, 겨자씨, 광야, 구름, 귀신, 그물, 기적, 길, 까마귀, 꽃 (ㄴ) 나귀, 나무, 낙타, 낱알, 날씨, 낫, 농사짓기, 누룩, 늑대 (ㄷ) 달걀, 닭, 도끼, 독사, 독수리, 돈, 돌,

6)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 인물로 칼 아메리(Carl Amery)를 들 수 있다. 아메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영역으로만 환원시켜 인간 중심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하였다. (박원기, 위의 책, p. 268 재인용)

7)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 인물로 린 화이트(Lynn White, Jr.)를 들 수 있다. 린 화이트는 본래 중세 기술공학사(mediaeval history of technology)를 전공한 미국의 역사학자인데 그에 의하면, 근대 서구과학의 정신적 뿌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모체로 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1967년 그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근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이란 논문을 통해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인간을 온갖 창조물의 군주 자리에 앉혀 놓고 자연을 모독하게 하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창1:28)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곳에서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고 자연을 무제한으로 약탈하고 훼손시키는 만행이 자행되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졸고, 위의 책, p. 89)

8)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지난 3세기 동안 서구 사상을 이끌어 온 기계론적 자연관, 즉 갈릴레오-데카르트-뉴턴-다윈식의 사고방식이 주류로 기능하였다. (졸고, 위의 책, p. 88)

9)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기독교사회윤리』 3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0), pp. 97-99.

10) 박원기, 위의 책, p. 269.

11) F. Alt, 손성현 역, 『생태주의자 예수』(서울: 나무심는 사람, 2003), p. 27.

12) 본 연구자가 담당하는 『환경신학』 수강자(대구 가톨릭신학원 2004학년 2학기 수강자 80명)와 함께 한 공동연구 결과이다. 성경은 수강자(수녀 78명, 수사 2명)의 특성상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를 참고하였다.

뒷박, 돼지, 등지, 들기름, 들꽃, 땀, 땅 (ㄷ) 로마 (ㄹ) 마시기, 마을, 맞이함, 맷돌, 머리카락, 먼지, 먹기, 메뚜기, 모래, 못, 무덤, 무화과나무, 문, 두드림, 물, 물고기, 물 낚기, 밀, 밀가루 (ㄴ) 바람, 바위, 밭, 배, 번개, 벌레, 벼이삭, 배고픔, 백합, 뺨, 별, 부화, 불, 불길, 비, 비둘기, 빛, 빵, 뽕나무, 뿌리 (ㄷ) 사막, 산, 새, 샘, 생명, 생선, 소금, 소리, 송아지, 시신, 식사, 썩은 고기, 씨, 씨 뿌리는 사람, 씻기 (ㅇ) 아궁이, 언덕, 양, 여우, 연기, 열매, 영원한 생명, 영혼, 올리브, 요리, 용서하기, 우리, 우물, 음식물, 이리, 이슬, 익음, 잃어버림 (ㅈ) 자귀나무, 자라남, 재, 전갈, 절벽, 젓먹이, 쥐엄나무, 죽음, 집, 지진, 진주, 지혜, 짚 (ㅊ) 참새, 천둥, 천사, 추수, 축복, 춤, (ㅋ) 카이사르, 칼, 코라진, 키 (ㅌ) 태양, 태어남, 태우기, 티베리아, 티끌 (ㅍ) 평화, 포도, 포도주, 풀, 풀밭, 풍랑, 피 (ㅎ) 하늘, 하나님, 하루살이, 형제, 호수, 황금, 황소, 황폐함, 회개, 흙 등.

예수가 사용한 언어에는 이렇듯 농사꾼 냄새나는, 목수의 아들다운,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한 단어들로 가득하다. 좀 더 살펴보면, 자연은 예수의 생애에서 불가분의 요소였다. 그는 공생활 직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갔으며(참고. 막 1:13),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기 위해 자주 군중과 떨어져 산에 오르셨다(참고. 마 14:23, 17:1, 막 6:46). 또한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었으며(참고. 마 13:1-52, 막 4:35-41, 요 21:1-4), 씨 뿌리는 비유(참고. 마 13:4-9, 18-23, 막 4:3-9, 13-20, 누 8:5-15), 포도나무 비유(참고. 요 15:1-17, 막 12:1-12), 양치는 목자 비유(참고. 요 10:1-18) 등에서와 같이 자주 자연세계를 동원하여 복음 말씀을 전개해 나갔다. 그렇다면 몇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적 메시지를 찾아보자.

1) 바람은 임의로 분다.(요 3:8)

생태주의자 예수는 바람 에너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

그리스어로 씌어진 신약성경에서 ‘토 프뉴마(*to pneuma*)’는 ‘성령’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바람’을 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창조의 숨, 창조의 능력을 머금고 있다. 세계 각지의 전통문화는 바람의 치유능력을 잘 전한다. 티베트, 중국, 인도의 옛 사람들, 북아메리카 나바호족 원주민들은 모든 생명체 속에서 순환하는 바람의 기묘함을 숭배해왔다. 이 생명의 기운을 중국에서는 ‘기(氣)’, 인도에서는 ‘프라나(*prana*)’, 나바호족 주민들은 ‘닐치이(*nillchi'i*)’, 티베트에서는 ‘룽(*lung*)’이라고 부른다. 모든 문화권에서 바람은 생명의 가장 여린 숨결로 간주된다. 그 여린 바람의 힘이 이 세상 도처에서 생명의 토대가 된다. 바람의 에너지는 생명의 에너지이다. 예수께 있어서 바람의 힘은 영의 힘, 하나님의 힘이였다.¹³⁾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영의 바람, 바람의 영의 본질적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임의로 분다.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바람의 영과 만난 것은 철저한 변화, 새로운 출발, 방향전환의 신호였다. 바람의 영은 예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참된 변화는 폭풍우 같은 사건이다. 영은 예수를 정말 폭풍처럼 갑작스레 사로잡아,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오스트리아 빈의 신학자인 아돌프 홀에 의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은 대목 이후에, 잘 눈에 띄지 않는 부사 ‘유티스(*euthys*)’가 무려 마흔 한 번이나 나온다. 그 뜻은 ‘즉시, 곧, 지금!’이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참고. 막 1:12). 그 전에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

13) F. Alt, 앞의 책, p. 252.

늘이 ‘곧’ 열렸다(참고. 마 3:16).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의 부름을 듣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참고. 마 4:20). 생태적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지금’ ‘곧’ 행동해야 한다.

2)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3:5)

역사적으로 고도의 문명을 일구어 낸 곳은 물과 관련이 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역시 큰 강-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인도의 갠지스 강,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꽃피었다. 물이 없는 문화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에 한강이 없고, 평양에 대동강이 없다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명의 발상지에서처럼 모든 종교에서 물은 신의 선물로 간주한다. 신은 물로 생명을 만들어 내고 그 생명을 유지시킨다. 물은 ‘H₂O’ 이상이다. 물은 화학적 차원을 넘어 영적 차원으로 승화된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세례의 물이 그것이다. 예수 역시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물은 치유능력을 지니고 있다. 물의 치유능력에는 언제나 신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의 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은 우리에게 양식과 식수를 제공해주며, 빨래를 씻어주고, 풀밭과 나무와 꽃에 수분을 공급하고, 가축과 우리의 목을 축여주며, 심지어 우리의 쓰레기까지 처리해준다. 문제는 지나침이다.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 매년 1천만 명이 물 부족 또는 물 오염 때문에 죽어간다. 하루에 27,000명꼴이다. 기근은 대개 물문제와 직결된다. 피테는 『파우스트』 2장에서 “물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썼다. 지금 세계는 석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다.¹⁴⁾

이제 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가르침, 즉 “강물은 때리고 자르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물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돌본다.” 물을 돌보는 삶의 자세, 그것이 생태주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3)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누가 16:13)

1912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갑판 위에는 춤과 노래, 삼패인과 근사한 파티복들이 어우러졌다. 넘치는 돈, 빈약한 정신, 그래서 승객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다. 새롭고 편리하고 큰 것에 대한 절대적 맹신과 과소비가 낳은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차디찬 북극의 얼음바다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환경문제의 배경이 되는 지상 재물의 집착과 과소비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므로 우리는 재산을 좀더 많이 모으려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호화로운 생활과 과소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탕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갑판 위에서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파괴의 쳇바퀴를 끊

14) F. Alt, 위의 책, pp. 304-305.

임없이 돌리며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하나는 소비적 인간(Homo consummens)으로 계속 살아감으로써 환경 재앙이라는 암초를 자초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100 가지 종류의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2만 헥타르(약 6천 5십만 평)의 사막을 만들어내고, 8,600만 톤의 비옥한 땅을 침식시켜 파괴하고, 1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어머니(mater)인 지구를 지나친 물질(materia)의 소비로 죽이고 말 것인가? 그리스의 페미니스트 안젤리카 알리티는 “현대문명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 경시와 물질 남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잘못된 에너지 소비습관이 끔찍한 환경재앙의 원인이 된다.

이제 우리는 생태주의자 예수를 닮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참고. 누가 15: 4-6) 마음으로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겸손되고 좀 더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즉 생태적 인간(Homo ecologicus)의 길을 걸어야 할 때이다. 예수는 자연 세계의 생명을 존중하고 철저하게 편든 생태주의자였다. 이런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신의 고통과 죽음이 요구되었다. 예수는 생명을 증진시키고자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였고(참고. 빌 2:7), 생명을 거스르는 죄를 없애고자 당신을 희생하셨다.(참고. 히 9:12) 생태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연의 본질에 상응하는 존재이다.¹⁵⁾

2. 생태찬미자 프란치스코(1181?-1226)

기독교 역사에서 간과하였던 생태학적 감수성을 다룰 때 반드시 등장하는 성 프란치스코는 생태학적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사랑을 요약(epitome)한 성자이다.¹⁶⁾ 본 항에서는 그의 생태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분석한다.

1) 창조주께 대한 찬미와 감사

생태학의 대부인 성 프란치스코는 미개하고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변형하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대자연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릴 줄 알았다. 그의 이러한 찬미와 감사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자각하는 데서 생겨난 열정적인 응답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발견하는 '미'와 '선'을 통하여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올라갈 줄 알았다. 그리하여 성인은 우주 만물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그는 피조물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와 선의 옷을 입히신 창조주께 찬미를 드리는 데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는 질서와 조화를 느꼈으며, 창조된 존재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았고, 피조물 안에는 창조하신 분의 표가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사랑, 관용, 그리고 그분의 모든 특성이 들어 있음을 프란치스코는 느꼈다.

절벽과 바위의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나 힘을 보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깨달았다. 조용한 이른 아침의 꽃들이나 천진난만하게 입을 벌린 새들은 하나님의 순수미, 창조주의 순결함과 끝없는 부드러움을 깨우쳐 주었다. 이러한 감정은 프란치스코에게 하나님께 대한 향구한 기쁨과 끊임없는 감사의 정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성인에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전하는 표징들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들이었다.

15) 이준모, 『생태적 인간』(서울: 다산글방, 2000), p. 24.

16) James A. Nash, *Loving Nature*(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p. 84.

2) 현대인을 위한 성 프란치스코의 생태적 메시지

프란치스코는 비록 오늘날처럼 명확하고 발전된 생태학적 인식 속에서 과학적 공식을 정리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전형적인 생태적 삶을 살았고, 모든 창조물 안에서 생태학적 의미와 가치가 충만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면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었다. 그의 이러한 근원적이고 예리한 시각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적이고도 윤리적인 지침을 찾아 볼 수 있다.¹⁷⁾

(1) 프란치스코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난다. 겸손이라는 라틴어 단어 *Humilitas*는 근본적으로 땅이라는 뜻의 *Humus*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과 인적관계를 갖고 있으며, 참으로 겸손한 자세란 땅, 더 나아가서 대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어떤 의무감을 갖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창조설화에서도 인간은 흙에서 창조되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결국 인간은 인적관계인 땅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수 없다. 프란치스코는 참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해 그들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섬겼다.

(2) 프란치스코 안에서 우리는 형제애적인 자세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나게 된다. 그는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지 않고, 동일하고 평등한 위치에 머물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자매처럼 사랑하고, 커다란 존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나면서, 별레 한 마리조차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잘 보여준다. 그러기에 그는 성별간에, 세대간에, 모든 창조물간에, 삶과 죽음에까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형제애를 강조한다.

(3) 프란치스코 안에서 우리는 공유적이고 연대적인 자세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만나게 된다. 그는 모든 피조물은 동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밝히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부속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모든 것이 소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도 독점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으며, 피조물과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떨어져 살수도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간은 다른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임을 밝혀준다.

(4) 프란치스코 안에서 우리는 평화적 자세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만나게 된다. 그는 파괴되어지고 있는 인간과 대자연과의 대립된 관계 속에서 정복과 착취, 무차별적인 개발과 남용이 아닌, 생태학적인 재화해의 길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전쟁,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속에서 그는 재화합의 정신 속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평화의 전달자였다.

(5) 프란치스코 안에서 우리는 명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만나게 된다. 그의 명상적 자세는 모든 피조물들을 단순히 소비할 물질 이상의 것으로, 다른 무언가를 드러낸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창조

17) 엄두섭, 「아씨시 프란치스코의 생명사상과 삶」, 장희익 외,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서울:내일을 여는 책, 2000), pp. 163-173 참조.

주이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다. 창조주만이 세상의 마지막 척도로서 모든 생명의 비밀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인간은 자연세계에 대해 지배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자연에 대한 명상은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주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새롭게 일깨워 줄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 그리고 우주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3. 생명경외자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 ~ 1965) 하면 ‘아프리카의 성자(聖者)’가 떠오른다. 물론 이 말은 그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슈바이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극히 외향적이고 미진하다. 우리는 단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생을 바친 한 기독교인 의사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현대의 위인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슈바이처를 연상할 뿐이다.

그런데 기독교 환경윤리의 개발에서 있어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생태학적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사랑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해석하느냐에 있다.¹⁸⁾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대의 녹색 기독교인이 바로 슈바이처이다. 본 항에서는 슈바이처의 생명경외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환경윤리의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슈바이처의 생명경외(Reverence for Life)

슈바이처의 삶에 가장 큰 중심이었던 생명경외 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의 생애에서 주목할만한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¹⁹⁾

슈바이처가 활동했던 가봉의 람바레네에는 정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없다. 슈바이처는 집을 장식하기 위해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꽃을 꺾는 것은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그의 근본 윤리 원칙을 파괴하는 일이다. 한번은 슈바이처가 런던의 성 제임스 공원에서 친구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길에 자갈이 깔려 있어 울퉁불퉁하니 잔디로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니, 자네는 엄연히 길이 나 있는데도 내가 잔디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슈바이처가 만든 ‘생명경외’라는 말은 람바레네에서 의료선교 사업을 시작한 후 2년이 조금 지난 1915년 9월, 원시림 속에 있는 오고웨 강(the Ogowe River)에서 200km 떨어진 은고모(N'Gomo)로 배를 타고 가던 중,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질 무렵 배가 막 무리 지어 있는 하마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고 있을 때, 문득 ‘생명에 대한 경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그런 말을 예감한 적도, 구하려고 애쓴 적도 없었는데 그 단어를 통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슈바이처는 ‘생명경외’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 긍정 및 인생긍정(die Welt- und Lebensbejahung), 그리고 윤리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이념에 도달한 것이다. 슈바이처가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1923년 봄에 출판한 『문화와 윤리』(*Kultur und Ethik*)²⁰⁾라는 책과 자서전인 『나의 생애와 사상』²¹⁾에서

18) James A. Nash, *Loving Nature*, p. 139.

19) 줄고, 『환경신학의 이해』, p. 158.

20) A. Schweitzer, 김석목 역, 『문화와 윤리』(서울: 청화, 1984) 참조.

21) A. Schweitzer, 지경자 역, 『나의 생애와 사상』(서울: 홍신문화사, 1991) 참조.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슈바이처의 ‘생명경외’ 개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1) ‘경외’(Ehrfurcht)

슈바이처가 언급한 ‘생명경외’ 라는 말에서 ‘경외’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외경’(畏敬), 또 한편으로는 ‘존엄성’ 또는 ‘존경’ 혹은 ‘존중’으로 번역되며, 영어로는 reverence 혹은 respect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사용한 ‘Ehrfurcht’는 reverence 이상의 의미, 즉 존중 혹은 존경을 넘어서 신적(神的) 대상을 향하여 가지는 성(聖)스러운 차원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외’(敬畏)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²²⁾

(2) 생명경외의 차원

황재범은 슈바이처의 생명경외가 갖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차원, 즉 직관적, 신비주의적, 보편주의적, 종교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²³⁾

① 직관적 차원

슈바이처는 생명경외 개념이 결코 고상한 이념 내지 원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그는 한 생명으로서의 모든 인간이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즉각적 의식 즉 직관에서 시작함으로 보편적 윤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슈바이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구제할 수 없는 추상의 길로 빠져든다고 지적하고, 이런 허구적인 사고방법으로는 인간은 자신과 우주의 관계를 넘어선 어떠한 결과도 얻어낼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사실로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에 둘러싸인 살고자하는 생명이다.(Ich bin Leben, das leben will, inmitten von Leven, das leben will)’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 사고 있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자신을 삶에의 의지 한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서 파악하게 된다.²⁴⁾ 슈바이처가 자신의 새로운 윤리로서의 생명경외 개념을 어떤 종교적 혹은 철학적 이상이나 원리가 아니라,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즉각적인 의식(consciousness)으로서 ‘삶에의 의지(will to live)’에 정초시킨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 온 신학자요, 의료 선교사로서 기독교적 이념, 즉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신비적 차원

슈바이처에게 신비주의는 생명 현상 자체 그리고 무수한 생명들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그들과 나의 연관성 및 동일성에 대한 인식체계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신비주의는 자연적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인 신과의 합일을 직·간접적으로 의미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이런 종교적 의미-나와 신과의 수직적 관계-는 크게 중시하지 않는 반면, 그것의 윤리적 의미-하나의 생명인 나와 다른 생명과의 수평적 관계-를 부각시킨다.

슈바이처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모든 존재들 심지어 무생물(예를 들면 눈꽃송이 하나)조차

22) 황재범, “슈바이처의 생명경외 개념의 이해와 비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23(2002), p. 217.

23) 황재범, 위의 글, pp. 223-234쪽.

24) A. Schweitzer, 『나의 생애와 사상』, pp. 142-143.

도 생명으로 환원시켜 보되, 그 생명은 곧 나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 삼라만상이 동일한 생명, 삶에의 의지라는 것이 곧 신비인 셈이다. 이 신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생명 현상을 긍정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슈바이처는 강조하는 것이다.

③ 보편적 차원

이는 신비적 차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은 그 가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동등하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슈바이처가 이야기하는 생명경외 개념이 그 대상을 보편적 생명으로 확장함에 주목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생명에 대한 계명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으로 보편적 윤리를 선택하는 것, 이 점은 인간관계만을 다루는 전통 윤리와 차이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종교적 차원

슈바이처는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신학 및 철학을 공부한 신학자였고,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의 사상에 기독교적 요소가 스며들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상, 특히 생명경외 개념을 특별하게 그리스도교적 색채를 입히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생명경외 개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위에 종교적(그리스도교적) 옷을 입혔다기보다는 오히려 생명경외 개념 자체가 이미 종교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즉 그는 생명경외가 ‘사색(思索, das Denken)’에 근거한 바의 ‘근원적 경건심’(elementare Froemigkeit)이라고 말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외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름 아닌 살아 있는 존재라는 그 실존적인 깨달음, 즉 나는 살아 있으며 계속 살고 싶어한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와 다름없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다른 수많은 존재들과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의지, 자신의 실질적인 생명을 존중하듯이 타자가 지닌 삶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슈바이처는 삶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주변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이들을 치료하는데 헌신코자 풍요로운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가봉에서 술한 나병과 이질환자들을 대할 때도 슈바이처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농사법, 영양공급, 위생개념 및 글자를 깨우쳐 주면서 자기 존중과 자립심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거세게 반발하는 그들 앞에서도 묵묵히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고자 하는 입장은 늘 변치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와 인간적인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존엄한 개인성을 존중하는 마음은 끊임없었다. 슈바이처는 세상의 가장 외진 구석에 떨어져 사는 특수한 개개인들에게 끊임 없는 존경심을 베풀으로써 우주적인 경외를 실천해 보였던 것이다.

III. 결 론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문화 키워드를 꼽으라면 연구자는 ‘웰빙’(wellbeing)²⁵⁾을 들고자 한다.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잘 먹고 잘 살기’ 캠페인은 환경 위기와 더불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대정신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웰빙이 빈익빈 부익부 경제상황과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인해 의식주 생활의 ‘명품화’, 정체불명의 사치 변종문화, 계층간 차별주의로만 치닫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웰빙이 아닐 것이다.

일찍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라는 로 웰빙이 단순히 질병과 질환의 부재가 아닌 전인적인 성장을 의미한 바 있다²⁶⁾. 이러한 정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함²⁷⁾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마태 5:48)”이 거룩함이 이르는 길²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한 참된 의미의 웰빙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을 근거로 생태윤리를 전개하는 길인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랑을 직접자연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직접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정의(justice)라는 중간 공리(middel axiom)를 통해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²⁹⁾.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자연을 사랑했던 녹색인물에게서 전자의 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나면서 히브리의 생태예언적 시각을 깊이 체득하였다. 그는 땅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자라면서 생기를 넘치게 했다. 이런 사실은 그가 흔히 사용하는 비유들,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들이 피는 꽃, 공중에 나는 새, 곡식 밭에 자라는 가라지,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 속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의 살롬 공동체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였다³⁰⁾ 이러한 생태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질서 보전에 기독교적 환경윤리학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이제까지 성경이 환경위기의 근원이라는 사고의 틀을 바꾸고³¹⁾, 캘리컷(J. Baird Callicott)가 언급한 ‘기독교의 청지기적 보전 윤리(christian stewardship conservation ethics)’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세의 프란치스코와 현대의 슈바이처가 공통적으로 가진 기독교적 녹색사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삼라만상에 대한 보편적이며 평등한 사랑이다. 기독교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기독교인은 두 가지 자세가 요청된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의 신앙(fides qua)과 올바른 신앙을 위해 묘사된 책임으로서의 신앙(fides quae)이다.

25)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4년 7월 ‘웰빙’을 우리말인 ‘참살이’로 바꾸어 부르기를 추천하였으나 아직 보편적이지 않으며, 용어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26) J. Moltmann,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p. 318.

27) J. O'Neil, *Ecology, Policy and Politics, Human Wellbeing and the Natural World*(N.Y.: Routledge, 1993), p. 1.

28) H. N. Malony, *Wholeness and Holines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p. 18.

29) 박원기, 앞의 책, p. 275.

30) H. Clinbell, 오성춘, 김의식 역, 『생태요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 204.

31) F. V. Dyke et al., 유정철 역,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서울: IVP, 1999), p. 239.

프란치스꼬와 슈바이처는 공히 이 두 가지 자세를 겸비하고 생활화한 녹색 기독교인이다. 최근의 환경윤리 연구가 자연중심, 생태중심으로 흘러감으로써 반기독교적 뉴에이지 영향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이 두 사상가의 그리스도론은 교회의 특별한 윤리적 자각과 사명을 지적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 두 사상가는 낡은 사고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생태적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웰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을 환경윤리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몇 가지 추려낸다면, ‘바로 지금, 자연을 생각해 보기’,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을 존중하기’, ‘크고 복잡한 것 보다 작고 단순한 삶으로’, ‘편리함을 찾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등을 제안한다³²⁾.

나아가 기독교 환경윤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라인벨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 생태여성 신학자(Sallie McFague, Rose mary Radford Ruether 등), 과정 신학자(John B. Cobb, Jr., David Griffin, Jay McDaniel 등), 해방신학자(L. Boff 등)의 창조신학 등에 대한 비평적 조망이 요청된다.



32) 줄고,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에코 프로젝트 A to Z, 생활과 환경』(대구: 대건인쇄출판사, 2004), pp. 144-146.

참고문헌

- 박원기, 『기독교 사회윤리, 이론과 실제』(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석창훈, 『환경신학의 이해』(대구: 대건인쇄출판사, 2004).
- 석창훈, 『생활과 환경 :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에코 프로젝트 A to Z』(대구: 대건인쇄출판사, 2004).
- 엄두섭, 『아씨시 프란치스코의 생명사상과 삶』, 장희익 외,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서울:내일을 여는 책, 2000).
- 이준모, 『생태적 인간』(서울: 다산글방, 2000).
- 조용훈, “환경윤리의 창조신학적 기초”, 『기독교사회윤리』 3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0).
- 황재범, “슈바이처의 생명경의 개념의 이해와 비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23(2002).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1일.
- Alt F., 손성현 역, 『생태주의자 예수』(서울: 나무심는 사람, 2003).
- Clinbell H., 오성춘, 김의식 역, 『생태요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Dyke F. V. et. al., 유정칠 역,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서울: IVP, 1999).
- Howard G. S., "Ecocounseling Psychology: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1 No.4, 1993.
- Malony H. N. , *Wholeness and Holines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Moltmann, J.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Nash J. A., *Loving Nature*(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 O'Neil J., *Ecology, Policy and Politics, Human Wellbeing and the Natural World*(N.Y.; Routledge, 1993).
- Schweitzer A., 김석목 역, 『문화와 윤리』(서울: 청화, 1984).
- Schweitzer A., 지경자 역, 『나의 생애와 사상』(서울: 홍신문화사, 1991).

к с і